

# ChungNam Report+



## 태어나야 고향인가? 정들면 고향이지! - 충남 농촌지역 살리는 '관계인구' 정책 마련해야

유 학 열

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

hyyou@cni.re.kr

조 소 진

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

sojin8028@cni.re.kr

### 주요내용

#### 방안 1 : 충남 농촌 Enjoy-Study 사업

- 지속적인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관계인구가 주목받고 있음
- 관계인구란 농촌지역에 거주(주민등록)하지 않은 인구 가운데,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지역 본연의 기능 유지와 발전에 작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의미

#### 방안 2 : 충남&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제정

- 지역 대학의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신중년 세대 대상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의 전환 교육 실시
- 지역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지역농업 입문, 지역 고유의 생활기술, 지역 문화 탐방 등 자율적으로 Enjoy-Study 커리큘럼 구성
- '충남&경기 Bay Valley 메가시티'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양 지역민 간의 상생 협력과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
- '충남&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' 제정 및 다양한 교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 지역 간의 인적·물적·정보 교류 활성화 도모

#### 방안 3 :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

- 농촌지역(주민)과 도시지역(주민)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끔 해주는 시스템(사람, 제도, 자원 등이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틀)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
- 그런 의미에서 '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사업'의 핵심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긴밀한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데 있음

## 관계인구의 중요성과 개념

### ■ 농촌지역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관계인구 등장

-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입 경쟁은 제로섬 게임임. '인구감소=지역소멸'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 살리기 해법을 찾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인구 개념의 하나가 관계인구임
- 기존의 주민만으로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.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적자원 공급이 필수적이며 그 공급원으로 관계인구의 역할이 중요함

### ■ 관계인구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부각

- 국가계획인 '2023~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'의 5대 전략 가운데 하나인 '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' 부문에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
-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의 일환으로 관계인구 활성화 추진체계가 제시됨(관계인구 → 생활인구(체류인구) → 정주민구 선순환 체계 마련)

### ■ 농촌지역주민은 물론 도시지역주민도 관계인구에 대한 긍정적 역할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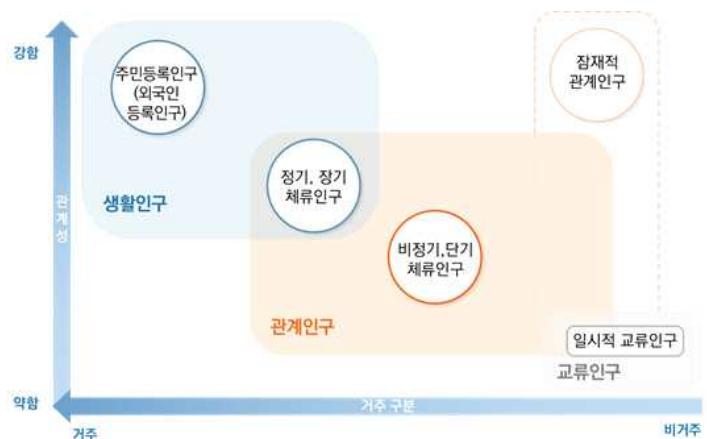
- 농촌지역주민의 79.2%는 외부인과의 교류가 마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, 92.4%는 외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
- 한편, 도시지역주민의 72.7%는 앞으로 농촌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80.3%는 관계인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

### ■ 관계인구란

- 관계인구의 개념은 국가 및 학자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'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(사람)'라는 공통점이 있음
- 관계인구는 생활인구 및 교류인구와 중복되거나 일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면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로 정하며,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지역 본연의 기능 유지와 발전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의미함

### ■ 생활인구와 교류인구

- 생활인구는 '주민등록인구'와 '외국인등록인구'는 물론 하루 3시간,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'체류인구'를 합한 것임
- 교류인구는 외부로부터 통근·통학, 쇼핑, 관광, 스포츠, 레저 등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함



| 관계인구, 생활인구, 교류인구 범위 |

구분		특징	예시
 생활 인구	주민등록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거주</li> <li>장기체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 인구(정주인구)</li> </ul>
	정기, 장기 체류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거주</li> <li>정기적 방문</li> <li>1일 3시간, 월1회 이상 체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근/통학 인구</li> <li>외국인 등록 인구</li> <li>봉사활동/재능기부자</li> <li>군인</li> </ul>
 관계 인구	비정기, 단기 체류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거주 or 일시적 거주</li> <li>비정기적 방문</li> <li>단기 체류(1개월 미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향 방문 인구</li> <li>살아보기 체험객</li> <li>5도2촌 거주인(별장, 농막 등)</li> </ul>
	잠재적 관계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거주</li> <li>비정기적 방문 or 비대면(방문)</li> <li>단기 체류 or 비대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향민</li> <li>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</li> <li>농특산물 구매자(온라인 등)</li> <li>농촌체험마을 방문객</li> <li>관광객(2회이상 재방문)</li> </ul>
 교류 인구	일시적 교류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거주</li> <li>일회성 방문</li> <li>SNS교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회성 관광객</li> <li>일회성 쇼핑객</li> <li>일회성 출장자</li> </ul>

| 유형별 관계인구 형태 |

02

## 관계인구 창출 기본 방향

■ 농촌지역(농촌주민)과 도시지역(도시민) 간 상호보완적 상생 관계

-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맹목적 교류가 아닌 농촌과 도시가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말하며, 이를 위해 농촌(농촌주민)과 도시(도시민)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

■ 농촌지역(농촌주민)과 도시지역(도시민) 간 지속적이고 심층적 교류

- 일회성 단순 교류가 아닌 보다 친밀하고 장기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농촌-도시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 필요

■ 관계인구 창출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

- 농촌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주체(외국 거주자 포함)와의 관계 맺기가 중요
- ex) 논산의 경우,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청권 1위 달성 - 시민·기업·행정·교육·군인 등 지역 맞춤형 상호 협력, 5촌2도 정주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에 큰 역할

| 관계인구 창출 기본 방향 |



## 충남 관계인구 창출 방안

### ■ 충남 농촌 Enjoy-Study 사업

- 지역 대학의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신중년 세대 대상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의 전환 교육 실시
- 지역 대학의 특성에 맞게 Enjoy-Study 커리큘럼 설정 : 지역농업 입문, 지역 고유의 생활기술, 적정기술 등
- 지역 대학의 전문적 인적 역량과 기숙사, 강의실, 실험실, 농장 등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추진(방학 기간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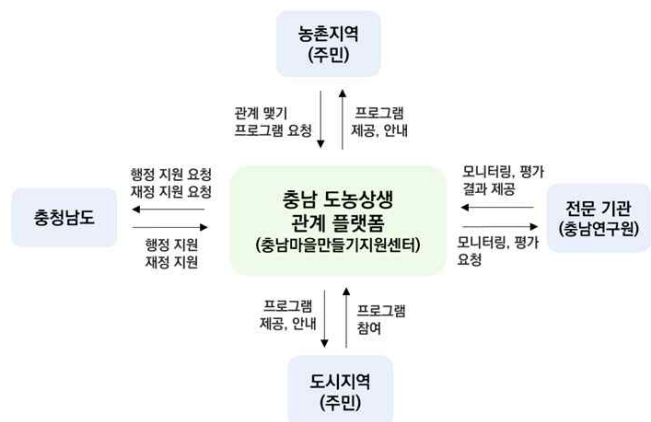
### ■ 충남&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제정

- '충남&경기 Bay Valley 메가시티' 구축에 기반이 되는 양 지역주민 간의 상생 협력 도모
- 지난 2월 7월 'Bay Valley 비전 선포식'을 갖고 충청도와 경기도 간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·추진하기로 하면서 양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님
- '충남&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' 제정을 시작으로 충남&경기 상생 MOU, 관계인구 심포지엄, 관계인구 창출 우수사례 포상식, 충남&경기 농수산물 교류전 등을 추진해 관계인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

구분	내용
1분기(3월)	양도지사주관 도농상생 토크쇼, 충남-경기도농 MOU, 관계인구 국제심포지엄 등
2분기(6월)	충남 농촌체험마을 순회탐방, 충남 농촌마을탐방 프로그램
3분기(9월)	충남&경기 농특산물 홍보전, 충남 귀농귀촌 홍보전
4분기(12월)	충남&경기 합동 향우회, 관계인구 우수사례 경진대회

### ■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

-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끔 해주는 시스템(사람, 제도,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틀)을 마련
-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은 농촌지역(농촌주민)과 도시지역(도시민) 간 상호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, 시행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며, 워크숍 개발 및 시행,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·홍보 및 관계인구 관련 사업을 시행



### 참고문헌

관계부처합동, 2023, 제 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.  
 농림축산식품부, 2023, 2023~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.  
 유학열 외, 2023, 충남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. 충남연구원.  
 이소영 외, 2021, 작지만 강한 연결-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